

## 한반도 강설의 기후학적 특성

장경화<sup>1</sup> · 정영근<sup>2</sup>

(<sup>1</sup>광주지방 기상청, <sup>2</sup>전남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e-mail: ykjeong@chonnam.chonnam.ac.kr)

겨울철 종관규모의 대기순환에 연관하여 국지적 규모로 나타나는 한반도 기후에 가장 중요한 기상학적 현상은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설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강설의 기후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아울러 한반도의 강설 발생 지역을 중부, 동해안, 서해안, 영남 등 4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강설량, 강설발생 시각, 경년변화 등을 비교하였다.

한반도 강설은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호남은 11월과 12월, 동해안은 12월에서 2월에 강설량이 많다. 서해안은 새벽시간대, 동해안에서는 새벽이나 야간에 강설이 많이 발생한다. 10cm이상 대설 발생일수는 11월 12월에는 서해안과 서해안에 인접한 호남내륙에 많이 나타나며, 주로 새벽시간대에 발생한다. 강설량의 경년변화는 한반도 전체 강설량과 12월, 2월 강설량은 최근에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1월과 1월 강설량은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강설 발생일은 중부는 1월과 2월에 많이 발생하며, 동해안은 2월 12월 순으로 나타난다.

한반도 강설발생의 종관환경은 각 권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즉, 중부지방 강설은 저상 기압골의 통과, 동해안 강설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연해주지방으로 확장하면서 동해안에 강한 북동 기류의 유입, 서해안 강설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서해상으로 장출하면서 강한 북서기류의 형성, 그리고 영남지방 강설은 한반도 남서쪽으로부터 저기압이 북동진하면서 온난하고 습윤한 하층 기류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대기불안정층 형성에 연관되어 주로 발생한다.

주요어: 대설 발생일수, 강설의 경년변화, 중부지방 강설, 영남지방 강설